

嶺南地域 板甲에 대한 一考察

金 榮 珉*

目 次

- | | |
|-------------------|-------------|
| I. 머리말 | 1. 板甲의 부장양상 |
| II. 板甲의 原流 및 系統問題 | 2. 板甲의 지역성 |
| 1. 板甲등장의 시대적 배경 | 3. 板甲의 계층성 |
| 2. 板甲의 계통문제 | IV. 맺음말 |
| III. 板甲의 전개양상 | |

I. 머리말

인류의 등장과 함께 분쟁은 시작되었고, 이러한 분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노력은 무구류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친 기술적인 발전을 수반하였다. 당대의 진보된 과학기술은 그 사회의 무기류체제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월한 군사력을 소지한 집단에 의해서 그 사회는 주도되었다. 그러므로 무구류에 관한 연구는 단지 기술발달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 사회의 문화발달상황까지도 가늠할 수 있게 한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4세기를 전후한 시기, 영남지역 일원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鐵製板甲(이하 板甲)의 출현과 그 전개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영남지역에서 발굴조사된 대다수의 판갑들이 아직도 미보고상태에 있기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현재까지의 조사성과를 기초로 하여 기왕에 보고된 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현장설명회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논지를 전개시켜 나가겠다.

II. 板甲의 源流 및 系統問題

1. 板甲登場의 時代的 背景

영남지역은 木槨墓의 등장에 즈음하여 정적인 사회발전단계에서 보다 動的인 사회변화상

* 釜山大學校 博物館

을 보이기 시작한다. 木槨墓의 登場은 당시 사회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로서 단순히 墓壙의 확대뿐만 아니라 遺物의 副葬樣相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즉 古式瓦質土器에서 新式瓦質土器로의 전환과 鐵器類 副葬의 增大 등, 以前의 木槨墓段階의 文化樣相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영남지역이 三韓時代를 거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과정을 겪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¹⁾.

이와 같은 三韓 前·後期の 考古學的 遺物副葬樣相의 변화에 대해서는 두가지 관점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 첫째는 서북지역을 포함하는 북부지역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문화유입의 결과로서 새로운 문화요소가 누증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보는 견해이며²⁾, 두번째는 夫餘族의 南下라고 하는 極端的인 문화충격으로 보는 견해이다³⁾.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민감한 문제에 접하여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결론을 유보키로 하며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화유입의 원류문제는 차치하고 영남지역의 제양상에 대해서만 언급하도록 한다.

板甲과 관련하여 목곽묘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 중, 부장된 다량의 철기 중에서 특히 武器類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극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목곽묘단계를 거치면서 철기문화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다량의 철기류가 부장되고 있다. 이를 내

表 1. 木槨墓의 木槨墓出土 遺物分析表

* 단위유적내의 대형급에 한함

遺物 遺構	土 器 類					鐵 器 類											青 銅 器 類					비고							
	組 牛 形 把 手 附 壺	주 머 니 壺	漆 器 類	臺 附 廣 口 壺	有 蓋 臺 附 直 口 壺	爐 形 土 器	短 壺	高 杯	기 타	鐵 劍	環 刀	鐵 矛	鐵 鏃	鐵 戈	板 狀 鐵 斧	鍛 鐵 斧	鑄 鐵 斧	鐵 鏃	鐵 鑿	마 비	刀 子		環 刀	細 形 銅 劍	銅 矛	銅 鏡	銅 帶 鉤	銅 環	銅 鐸
茶戶里1號		10							4		3	1	19	2	6	2	2		2			1	2	1	1	1	2	1	
良洞 55號	1								3		1	7		1		1						1				1	2		
良洞 99號	2	1							1		2	3		1		1			1								1		
良洞162號			1						6		11		40	6		3										8	1	철북1	
下垵 44號	1		4		1	1	2	3			31	12	10	4	2	1			1	1									
下垵 2號				2	1	3		1	3		1	48	95	10	4	6			1	1	1								
老圃洞31號				2	2	3	2	2			1	2	112		1		1					2							

- 1) 목곽묘와 관련된 논의는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① 林孝澤, 「洛東江下流 加耶土壙墓의 研究」, 『韓國考古學報』 4, 1978, 韓國考古學會.
 - ② 申敬澈, 「金海禮安里 160號墳에 대하여 -古墳의 發生과 관련하여-」, 『伽耶考古學論叢』 1, 1992,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③ 李在賢, 「嶺南地域 木槨墓에 대한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論文, 1994.
- 2) 李在賢, 註1)의 前揭書.
- 3) 申敬澈, 註1)의 前揭書.

용면에서 보면 무기류는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증가·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表1은 木棺墓段階과 木槨墓段階의 遺物副葬樣相을 정리한 것이다. 이 중에서 攻擊用武器인 鐵矛와 鐵鏃의 매납이 극도의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木棺墓단계의 유물부장양상은 목관묘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인 昌原 茶戶里遺蹟과 金海 良洞遺蹟의 예를 참고로 한다면 이전 시기의 細形銅劍에서 재질변화된 鐵劍과 소수의 鐵矛 등이 무기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圖面 1).

반면에 삼한시대 후기의 목곽묘단계가 되면 이전과 비교하여 무구류의 매납이 급증하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무구류의 질적인 면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즉 철검의 장신화와 환두대도, 有莖式 鐵鏃의 등장 등은 목관묘가 사용되던 시기와 비교해서 무기류 체제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공격용 무기류체제의 변화발전이 의미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살상력의 극단적 증대이며 이러한 극단적 살상력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木槨墓과 新式瓦質土器의 등장(圖面 2), 그리고 鐵製武器類의 다량매납(圖面 3)은 결국 삼한시대 영남지역의 사회적 격변기로의 돌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삼한시대 내에서 하나의 획기를 이루는 것으로 이러한 사회변혁의 원인은 크게 두가지 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외부적인 요인으로 2세기 후반대를 시작으로 漢, 魏의 교체, 5호 16국시대의 개막 등으로 특징지워지는 東北亞의 정세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東北亞의 정세변화는 한반도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게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 남부지역에의 목곽묘 등장은 이러한 東北亞의 정세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東北亞의 정세변화는 한반도내에도 삼한시대의 중요한 선진문물의 공급지였던 樂浪의 몰락과 高句麗勢力의 성장으로 뚜렷하게 나타난다.

樂浪은 한반도 남부지역에 대륙문물을 전달하던 중간 창구로서 漢의 선진문물을 공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고구려의 성장에 의하여 낙랑은 그 세력이 극도로 약화되고 313년 완전히 소멸해 버리고 만다. 이때 상당수의 유이민이 남부지역으로 흡수되고 이들의 문화가 남부지역에 전파되고 있다⁴⁾. 또한 고구려세력의 성장은 남부지역을 압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⁵⁾. 즉 한반도 북부지역의 강력한 정치체의 성장은 남부지역의 미약했던 정치체를 자극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 이러한 결과, 소국단계에 머물러 있던 남부지역의 유력정치체들은 政治·軍事·經濟力을 기반으로 주위의 소국들을 복속하기 시작하여 이

4) 樂浪地域의 流民들이 313年을 계기로 남부지역으로 일시에 들어오기 보다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남하하여 樂浪의 소멸단계에 이르러서는 거의 남부지역에서 그들의 기반을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5) 고구려 세력의 성장에 따른 주변과급효과는 직접적인 것보다 간접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외부적인 정세변화는 남부지역 제소국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위기의식으로 작용되었을 것이다.

전의 水平的인 關係를 垂直的인 關係로 再編하기 시작하였다.

둘째, 내부적인 요인으로 삼한시대를 거치면서 남부지역의 각 소국들은 수평적 사회구조⁶⁾에서 탈피하고 있다. 급속한 인구의 증가와 철제 농공구류의 사용으로 생산력의 증대가 이루어지고, 이는 잉여생산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하여 지역내의 우월자가 등장하게 되고 남부각지에서 경쟁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우월자들은 그들의 세력을 주변지역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소국 단계에서 영역개념⁷⁾이 도입되는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지역에 따른 자원의 불균형⁸⁾은 이러한 양상을 더욱 가속화하는 커다란 요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내용의 결과, 3세기대 한반도지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격변기를 맞게 된다. 기존의 공동체적인 사회성격에서 탈피하여, 미약했던 정치체들이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春秋戰國時期的 축소판을 재현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정치체의 재편작업은 힘의 논리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古代國家의 성립이 완성되는 6세기대까지 계속된다. 이러한 힘의 논리에 기초한 정복사업은 필연적으로 무구류체제의 발전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고 공격용 무기류의 발전은 곧바로 방어용 무기류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방어용 무기류가 개선되면 공격용 무기류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발달해가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板甲은 이러한 제현상의 연속선상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목관묘단계에도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갑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중국의 경우 前漢代로 편년되는 札甲이 보고된 바 있고⁹⁾ 이전에 革製 甲冑가 다수 알려져 있다(圖面 4)¹⁰⁾. 한반도지역에서는 石巖里 219號¹¹⁾와 茶戶里 2號¹²⁾에서 확인된 바 있다(圖面 5의 상). 그러나 이들 유물들은 대체로 중국의 문물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음으로 삼한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 같다. 그러나 3세기 후반대부터는 공격용 무기와 방어용 무구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한시대 영남지역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다. 즉 목관묘의 등장을 즈음한 시기 이후의 영남지역의 역동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영남지역에서는 발전된 철기제작기술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방어구인 판갑을 제작하기 시작한다. 현재까지의 예로 보는 한 판갑은 3세기 후반대를 기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철촉 등 제반 무기류의 변화양상으로 볼 때 비교적 안정된 연대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6) 필자는 삼한시대의 사회를 집단간의 우열이 뚜렷이 부각되지 않은 연맹적성격, 즉 수직적체계가 아닌 수평적인 공동체로서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서의 수평적인 공동체라고 함은 집단간의 지배질서가 황적으로 연결된 상호교류가 빈번한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7) 여기서 영역이란 국가체제하의 국토라는 개념과 구분하고 중심지역에서 주변지역으로의 영향력행사범위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8) 李盛周, 「1~3세기 가야 정치체의 성장」, 『韓國古代史論叢』5, 韓國古代史研究會, 1993.

9) 內蒙古自治區文物工作隊, 「呼和浩特十二家子古城出土的西漢鐵甲」, 『考古』1975-4期.

10) 文物出版社, 『中國古兵器論叢』, 楊弘, 1980.

11) 樂浪漢墓刊行會, 『樂浪漢墓』, 第二冊, 大正十三年度發掘調查報告, 1975.

12) 李健茂 外,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Ⅰ)」, 『考古學誌』第1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2. 板甲의 系統問題

板甲의 계통문제에 있어서는 대체로 고구려와 연결시켜보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九政洞 3槨의 首尾部形態가 고구려 벽화고분에 묘사되어 있는 頸甲과 유사함에 착안해서 고구려의 영향으로 파악한 견해¹³⁾와 덕흥리 벽화고분의 판갑묘사장면에 입각해서 고구려와의 상호관련성을 지적한 견해¹⁴⁾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구려지역에서 확인된 판갑이 없다는 것과 덕흥리 벽화고분¹⁵⁾의 경우 5세기초라는 절대년대를 가지는 것으로 시간적으로 구정동3곽의 것보다 오히려 1세기 정도가 뒤진다는 점에서 판갑의 원류문제를 고구려에 연결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5세기에 들어서면 영남지역에서도 찰갑의 도입과 함께 판갑의 상징성이 약화되고 수장층에 의해 찰갑이 채용된다. 또한 4세기 중반의 절대년대를 가지는 안악 3호분의 기마행렬도에는 찰갑이 묘사되어 있다. 때문에 5세기초의 덕흥리벽화고분의 벽화내용을 판갑묘사 장면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덕흥리벽화고분의 주인공 '鎭'이 유주자사, 동이교위라는 벼슬을 받은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鎭'은 가야지역의 반대쪽인 고구려 서변에서 활약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 그러므로 덕흥리벽화고분의 갑옷의 묘사장면과 가야지역의 縱長板系列의 板甲을 관련시켜 보기에는 시·공간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지금까지 고구려를 포함하는 북부지역에서 판갑이라고 할 만한 요소는 전혀 발견된 예가 없고, 또한 고구려지역에서는 오히려 판갑보다는 札甲片으로 생각되어지는 小札片이 보다 이른 시기에 출현¹⁷⁾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반도 북부지역에서는 판갑보다는 찰갑에 준하는 방어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최근 영남지역의 판갑출토양상을 토대로 하여 申敬澈은 縱長板系列의 板甲은 영남지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氏는 甲冑를 포함한 철제무구류가 金海를 중심으로한 本伽耶地域에서 제작되기 시작하여 慶州를 포함하는 주변지역으로 파급되어 갔다고 파악하고 있다¹⁸⁾. 그러나 中山里 25號출토의 판갑은 현재까지의 조사례로 보는 한 가장 이른 것이며 또한 이와 연계해서 九政洞 3槨에서도 4세기 전반대에 해당하는 판갑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에 金海 良洞과 大成洞에서 총 5령의 판갑이 확인되었으나 4세기 후반대 이후의 것들

13) 崔鐘圭, 「慶州九政洞一帶 發掘調査」, 『박물관신문』139호, 1983.

14) 宋桂鉉, 「傳金海出土 鐵製板甲」, 『年報』12, 1989.

15) 사회과학원조선화보사, 『덕흥리벽화무덤』, 1986.

16) 주영현, 「주요고구려벽화무덤의 주인공문제에 대하여」, 『高句麗古墳壁畫』, 北韓考古學術叢書 ⑧, 朝鮮畫報社, 1985.

17) 사회과학원출판사, 『고조선연구논문집』, PP. 87. 논장신서12, 1989.

18) 申敬澈, 「五世紀代における嶺南の政勢と韓日交渉」, 『謎の五世紀を深る』, アジア史學會, 1992
종장판계열의 판갑이 영남지역에서 등장하였다는 것에는 동감하나, 철기문화의 본가야(김해) 중심설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며, 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검토하기로 한다.

이다. 또한 福泉洞古墳群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거나 64號에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方形板革綴板甲이 확인되어 주목된다(圖面 5의 하). 이는 아마도 伽耶地域에서 鐵製板甲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계의 것으로 믿어지며 더 이상의 제작 매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일시 사용된 것이며 영남지역 縱長板系板甲의 제작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즉 낙동강 동안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철제판갑이 먼저 제작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한반도 북부지역에서 시작된 정북전쟁의 여파가 慶州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동안지역을 1차적으로 자극한 결과로 보이며 이러한 여파는 점차로 김해지역에까지 파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한반도 북부지역에서 판갑에 비정될만한 유물이 없다는 점과 영남지역 초현의 판갑이 정형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낙동강동안지역의 판갑은 재지의 기본모델에서 프로토타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필자는 기본적으로 낙동강동안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종장판계열의 판갑을 재지의 有機質製의 판갑에서 재질변환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Ⅲ. 板甲의 展開樣相

1. 板甲의 副葬樣相

4세기에 등장하기 시작한 판갑은 가야지역의 우수한 철기제작기술을 발판으로 상위신분층의 권위적 상징물로서뿐만아니라 전시의 뛰어난 방어구로서 널리 보급된다. 그러나 4세기 이후 판갑의 용도에 있어 찰갑의 보급이라는 주요한 변화의 획기가 있음이 발굴의 결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판갑의 사용에 있어서 신분적인 사용변화를 충분히 반영하는 결과로 보인다. 表. 2에서와 같이 판갑의 매납에는 크게 3단계의 구분이 가능하며 이와 연결하여 유구매납상에서 5소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I기는 등장기에 해당되며 3세기대의 사회적인 정세에 의하여 철제의 판갑이 제작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대체로 4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보이며 도합 4령이 확인되었으며 3점이 斯盧國의 영역권내에 포함되는 慶州와 中山里출토품이다. 1점은 福泉洞 64號의 方形板革綴板甲은 영남지역의 독특한 판갑형식인 종장판계열이 아니고 (中國) → (百濟) → 伽耶의 통로를 거친 유입품 내지는 복제품일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영남지역 갑주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므로 가야지역에서 3세기대의 철제판갑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판갑의 등장은 慶州를 중심으로한 斯盧地域일 가능성이 높다. 즉 북으로부터의 가중되는 군사적 압력은 사로지역의 소국을 자극하고 이 결과 경주지역에서 우수한 철기제작기술을 바탕으로 판갑이 제작되었고 경주지역의 갑주류는 가야지역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등장기에 있어서의 판갑이 형식에 있어서 비교적 정형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기본모델, 즉 유기질의 갑옷을 모방한 것일 가능성을 전장에서 제시한 바 있다.

Ⅱ기와 Ⅲ기는 판갑매납의 盛行期에 해당하며 시기적으로는 4세기 중엽이후부터 4세기말

表. 2 시기별판갑의 매납양상변화단계

소기	유 구	묘 제	시 기	형 식	단 계	출토지
I	울산 중산리25호분	위석목곽	3세기후반	종장판정결	등장기	1
	경주 구정동 3곽	목곽묘	4세기전엽	종장판정결 2		2
	동래 복천동64호분	목곽묘	4세기중엽	방형판혁철		3
II	동래 복천동38호분	목곽의 주곽	4세기중엽	종장판혁결 1	성행기	4
	동래 복천동60호분?	목곽의 부곽	4세기중엽	종장판정결 3-4		5
	동래 복천동69호분	목곽의 부곽	4세기중엽	종장판정결 2		6
	동래 복천동71호분	목곽의 부곽	4세기후엽	종장판정결 2		7
	동래 복천동46호분	목곽의 부곽	4세기후엽	종장판정결 2		8
III	동래 복천동42호분	목곽의 주곽	4세기후엽	종장판정결		9
	동래 복천동43호분	목곽의 주곽	4세기후엽			10
	김해 대성동39호분	목곽의 주곽	4세기후엽	종장판정결		11
	동래 복천동57호분	목곽의 주곽	4세기말	종장판정결 2	12	
	김해 대성동 2호분	목곽의 주곽	5세기초	종장판정결		13
IV	김해 양동 78호분	목곽묘	5세기초	종장판정결		14
	김해 양동 167호분	목곽묘	5세기초	종장판정결		15
	합천 옥전 68호분	목곽묘	5세기초	삼각판혁철	16	
V	김해 대성동 7호분	목곽의 부곽	5세기전엽	종장판정결	퇴조기	17
	동래 복천동10호분	석곽의 부곽	5세기중엽	종장판정결		18
	고령 지산동32호분	수혈식 석곽	5세기중엽	횡장판정결		19
	창녕 교동 3호분	횡구식 석실	5세기중엽 ?	삼각판정결		20
	동래 복천동 4호분	수혈식 석곽	5세기후엽	삼각판혁철		21
	동래복천동112호분	수혈식 석곽	5세기후엽	횡장판정결		22
	생곡동 가달 4호분	수혈식 석곽	5세기후엽	삼각판정결		23
	합천 옥전 8호분	수혈식 석곽	5세기후엽	횡장판정결		24
	청주 신봉동 1호분	목곽묘	5세기후엽	삼각판정결		25
	동래 연산동 8호분	석곽의 부곽	5세기말	장방판혁결		26

에 해당된다. II기와 III기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로는 II기에서는 2령의 판갑¹⁹⁾이 木槨墓의 副槨에 매납되고 있으나 III기가 되면 木槨墓의 主槨에 판갑이 매납된다는 것이다. 이는 판갑 부장의 중요한 변화로서 판갑이 부곽에서 주곽으로 옮겨지는 현상은 당시의 유물부장관습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판갑이 가지는 의미의 변화와도 관계되리라 생각된다²⁰⁾. 이 시기

19) II기에 속하는 복천동46호분은 부곽에서 판갑은 1령이 확인되었으나 복원이 완료된 후 잔편의 상태로 볼 때 1령 이상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 유물의 부장관념에 해당되는 부분임으로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기에는 역부족임을 느끼지만 간단히 소견을 옮기기로 한다. II기는 부곽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5세기 중반이후에 나타나는 판갑의 부곽매납이라는 양상과는 구별해서 취급되어야 하며 부곽도 입기의 특수한 현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까지는 金海 大成洞古墳群에서의 예를 제외한다면 영남지역에서는 찰갑이 부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판갑의 盛行期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찰갑은 Ⅱ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나 이 시기는 도입단계이며 Ⅲ기의 大成洞 2號段階에서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福泉洞古墳群의 경우는 大成洞古墳群에 비하여 하위레벨에 속하는 상층지배계층의 집단묘로서 Ⅲ기까지 찰갑은 보이지 않고 있다.

Ⅳ기는 찰갑이 보급되어 일반화되고 판갑은 상위지배계층의 부장품에서 가치하락하여 중간지배계층의 부장품으로 사용되는 시기이다. 3령이 이 시기에 해당되는데 대체로 중형급의 목곽묘이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낙동강 서안지역에서 판갑이 확인된다.

Ⅴ기는 Ⅳ기의 영향이 강하며 대형석곽묘의 부곽에도 매납이 되는 양상이다. 또한 5세기 중반대를 기점으로 하여 종장관계열의 판갑이 나타나지 않으며 낙동강 서안지역의 삼각판내지 횡장관계의 판갑이 부장되고 있음이 특징이다. 대체로 Ⅳ기 이후 대형분에는 찰갑이 보편적으로 매납되고 일부 중형급의 유구에 찰갑이 매납되는 점으로 볼 때 찰갑이 보편화되면서 판갑의 가치는 Ⅴ기가 되면 더욱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기를 크게 보면 3단계의 변화단계를 거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Ⅰ기는 판갑의 등장기, Ⅱ, Ⅲ기는 판갑의 盛行期, Ⅳ, Ⅴ기는 판갑의 退潮期로 대별할 수 있다. 하지만 성행기의 판갑보다 퇴조기의 판갑량이 숫적으로 상회하고 있다는 것은 숫적인 다과에 의해 판갑의 성격을 파악한 것이 아니라 갑주를 소유하는 계층적 우열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임을 밝혀둔다.

2. 판갑의 지역성

본장에서는 판갑의 공간적인 분포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4세기대를 시작으로 영남일대에서 등장하기 시작하는 판갑은 구성철판의 종류, 결합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형식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製作工人의 차이를 들 수 있을 것이며 제작공인의 차이는 곧 판갑의 기본모형을 달리한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지역적으로 판갑이 부장되는 양상을 지도상에 표시하면 삽도1.과 같다.

삽도1에 표시된 바와 같이 종장판정결판갑은 낙동강 동안지역을 중심으로 김해 일부지역이 주요분포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시기적으로 종장판정결판갑은 5세기 중엽이후 낙동강 동안지역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으며 오히려 낙동강서안지역의 7단구성판갑들이 간헐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종장관계열의 판갑이 낙동강 동안지역을 중심으로 제작되어지고 있으나 주변지역으로 분포범위가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것과는 커다란 차이점이 아닐 수 없다. 즉 종장관계열의 판갑은 4,5세기대에 낙동강동안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하였으나 이후 급격히 쇠퇴하게 된다. 반면 7단구성판갑은 찰갑의 등장과 같은 시점에 생각되기 시작하여 주변지역으로 분포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당시의 영남지역의 세력판도와 관련

측면으로서는 설명이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이부분에 관한 설명은 역시 인류학, 종교학 등 유관학계와의 공동적인 연구에 의해서만이 설명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장에서는 Ⅱ, Ⅲ기의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일단 현상적인 면만은 인정하고 그 설명에 대해서는 이후 자료의 집적을 기다리고자 한다. 단 주부곽부장의 계층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하고자 한다.

부곽의 주곽에 종속된 토광이라는 것에는 그 용어에서도 설명하고 있듯이 재론에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종속토광으로서 부곽유물들을 전적으로 주피장자의 소유로 볼 것이나, 아니면 부곽내지 주곽내에 순장을 인정하고 순장자의 것으로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가 따른다. 그러나 본고의 의도가 순장에 관한 연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장의 여러 형태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²²⁾. 때문에 판갑이 부장된 예만을 중심으로 부곽을 위주로 설명하도록 한다.

<表 3>

遺 構	遺 構 規 模	殉葬者位置	殉葬者數	비고
大成洞 13號	?	主槨	3인	
大成洞 3號	主; 670×430, 副; 350×111	主槨	3인	
大成洞 23號	625×436	主槨	2인	
大成洞 39號	主; 529×290, 副; 325×260	主槨	3인	
大成洞 1號	806×410		5인	단독분
大成洞 7號	主; 750×530, 副; 380×260	主槨	3인	
大成洞 8號	702×405		8인	단독분
大成洞 11號	680×360	主槨	3인	단독분
福泉洞 38號	主; 750×360, 副; 340×280	主槨	1인이상	
福泉洞 11號	主; 790×480, 副; 600×350	主槨	3인	
福泉洞 22號	主; 640×455, 副; 645×430	主槨	3인	
福泉洞 53號	主; 640×420, 副; 415×308	副槨	1인	
福泉洞 19號	主; 550×310, 副; 480×285	副槨	2인	
福泉洞 36號	主; 702×435, 副; 608×448	主槨·副槨	副槨1인	

22) 순장에 관련된 집약적인 글은 몇개가 소개된 바 있다.

金貞培, 「中·日에 비해 본 韓國의 殉葬」, 『白山學報』 6, 1969.

朱容立, 「한국 고대의 순장연구」, 『손보기박사정년기념한국사학논총』, 1988.

金鍾徹, 「古墳에 나타나는 三國時代 殉葬樣相-伽耶·新羅地域을 中心으로」, 『尹武炳博士 回甲紀念論叢』, 1984.

權五榮, 「古代 嶺南地方의 殉葬」, 『韓國古代史論叢』, 4, 1992, 韓國古代社會研究所.

부곽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4세기대 이후의 대형분²³⁾ 순장이 확인된 예는 表 3과 같다.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세기대 이후 분묘에서 부곽순장의 예는 확인예가 극히 빈약하다.

하지만 동래 복천동고분군의 부곽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부곽공간의 절반 이상이 아무런 유물없이 빈공간으로 남아 있다. 인골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순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역시 순장의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뿐만아니라 복천동 19, 35, 53호분 경우 부곽에서 인골의 흔적이 확인되어 실자료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천동 35·36호의 경우 주·부곽에서 인골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복천동 46호의 경우 부곽에서 환두도가 확인되어 역시 1인이상의 순장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부곽의 순장가능성을 일부 인정한 상황에서도 역시 부곽유물의 소유관계는 뚜렷하게 단정지을 수 없다. 그러나 부곽을 가진 대형분에서의 이러한 소유관계는 오히려 판갑을 부장하고 있는 중형급유구와의 비교에 의해 해명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판갑과 찰갑을 동시에 부장하고 있는 대형분의 경우 이들 유물을 모두 주피장자의 소유로 인정할 경우 판갑과 찰갑의 관련성은 결국 기능적인 차이에 의해서 설명될 수 밖에 없다. 즉 A라는 일을 할때는 판갑을, B라는 일을 할때는 찰갑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한 기능적인 차이에 의해 주곽과 부곽에 나누어 부장되는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따른다. IV기에 해당하는 김해 양동의 78호나 167호는 양동집단내에는 최상층의 분묘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부장된 종장판정결판갑은 주피장자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에서 갑주의 부장에 있어서 일정한 계층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양동 78호, 167호의 주피장자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판갑의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계층적 한계가 있으며, 대성동고분군 복천동고분군에서 찰갑과 판갑을 공유하는 계층의 신분은 찰갑은 기본이며 판갑은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찰갑과 판갑은 계층적인 측면에서 그 성격이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부곽에 매납되어진 판갑의 소유가 순장자의 것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문제점일 수는 있지만 갑주의 부장에 따르는 계층적인 설명에 있어서는 재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된다.

또 한가지는 분묘에 매납되는 모든 유물의 주피장자의 사회적 역할과 실제 관련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대형분에서 검출되는 따비는 근거로 주피장자가 농업에 종사한 자라는 논리를 펴는 연구자는 없다. 이때 따비의 의미는 농업기반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기본적인 유물해석방법이다. 그러므로 분묘에 매납되는 갑주는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함이 보다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형급의 유구에서 확인되는 판갑은 찰갑과 계층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유구내에서 검출되는 따비의 의미와 같이 판갑소유자 계층을 장악하고 있음을

23) 4세기대 주부곽을 가진 대형분의 예는 동래 복천동고분군과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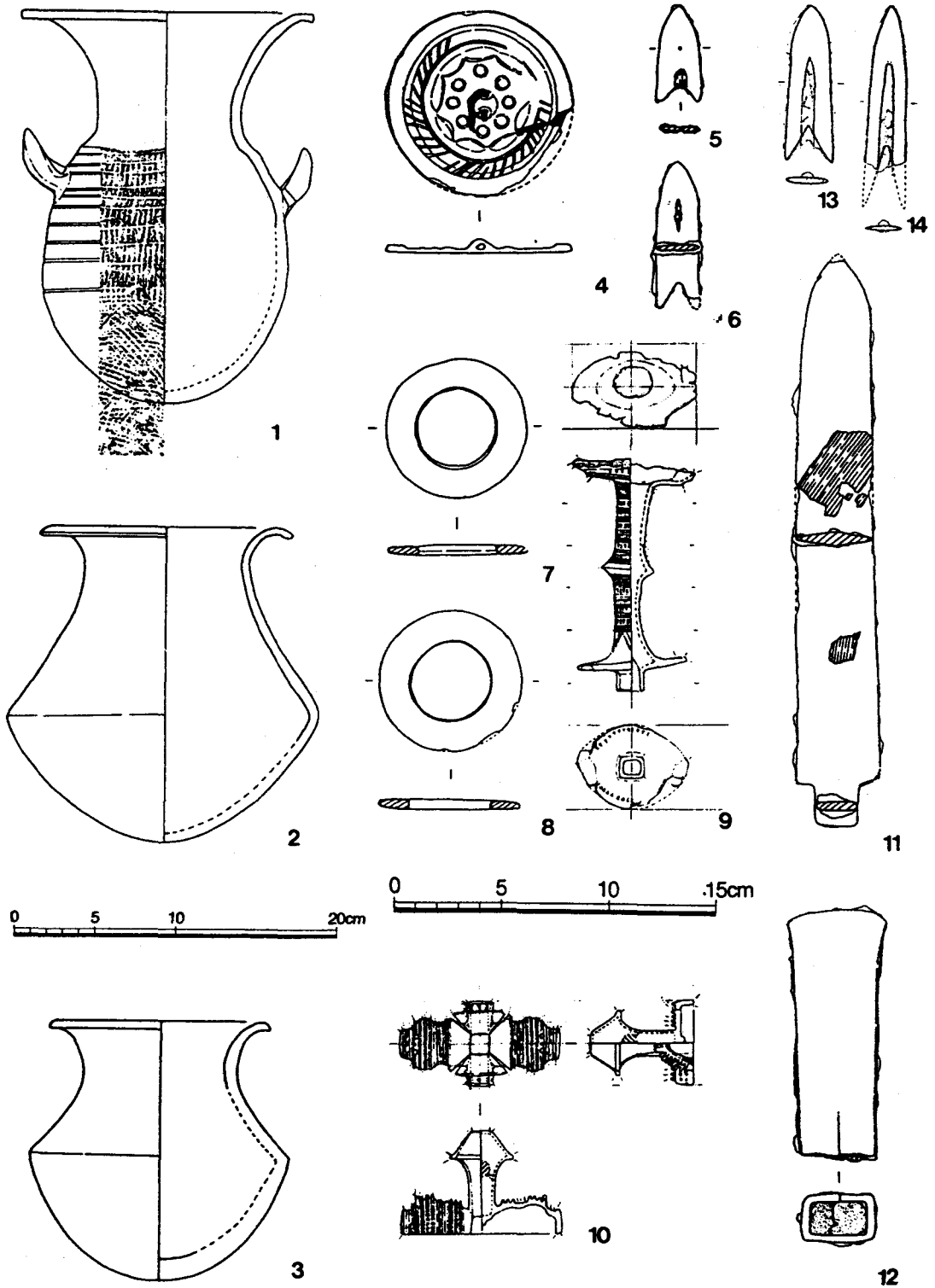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판갑의 주부곽매납에 따른 문제점은 결론적으로 I, II, III기의 판갑은 주피장자의 직접적인 소유로 인정할 수 있으며 III기 이후의 것은 주피장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했다기 보다는 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부속된다는 것은 찰갑과 판갑은 소유에 있어서 분명한 계층차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IV. 맺 음 말

이상으로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등장하였던 판갑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판갑은 삼한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의 변화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구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철기제작기술의 발달과 노동동원력의 확대에 의하여 점차 찰갑으로 대체되며 소멸하게 된다. 또한 그 등장과 전개과정은 주변지역과의 역학관계에 의하여 좌우되고 있었던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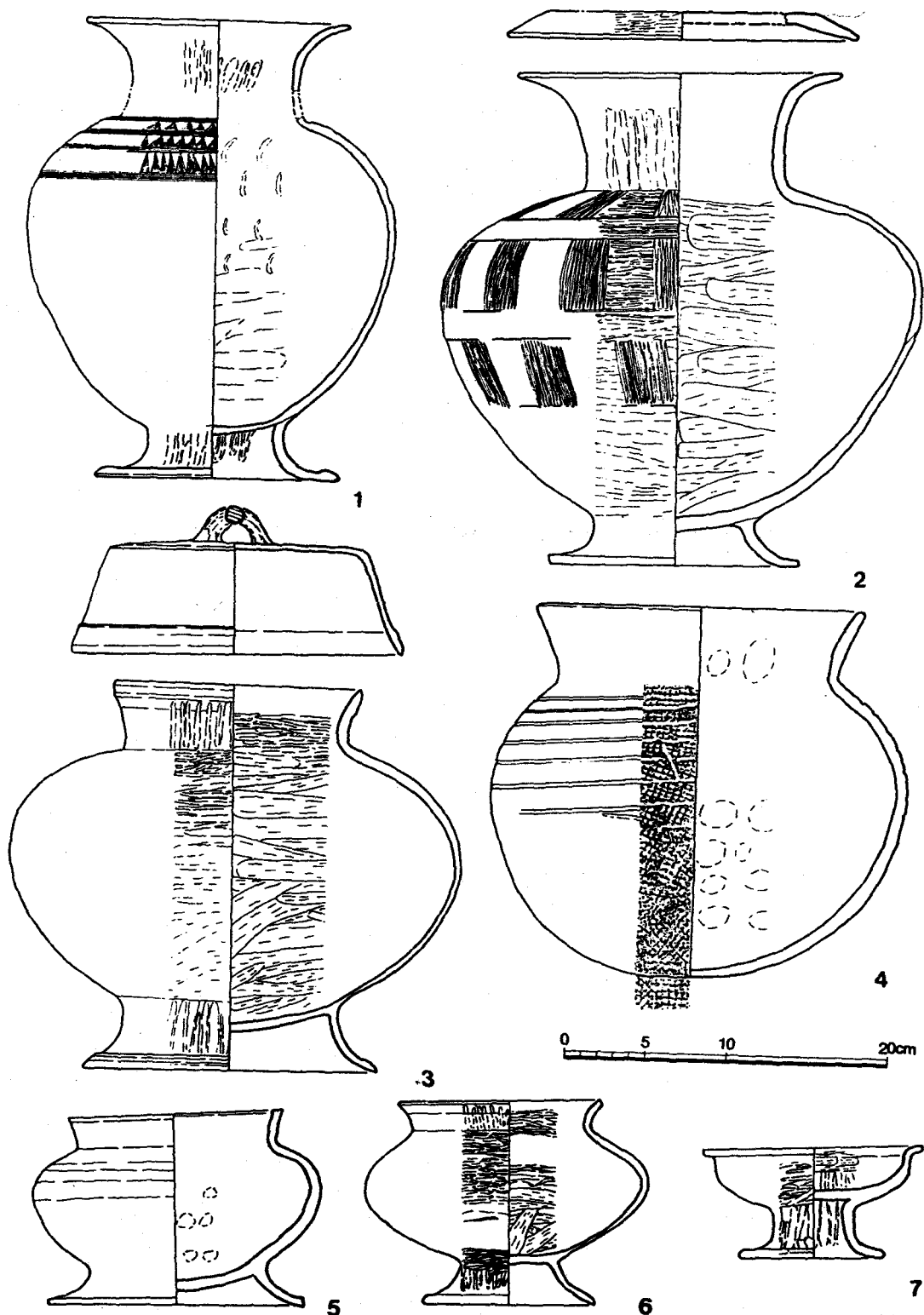
빈약한 자료를 근거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미보고자료의 공개에 의하여 많은 부분들이 수정되어지리라 생각된다.



圖面 1. 木棺墓 出土 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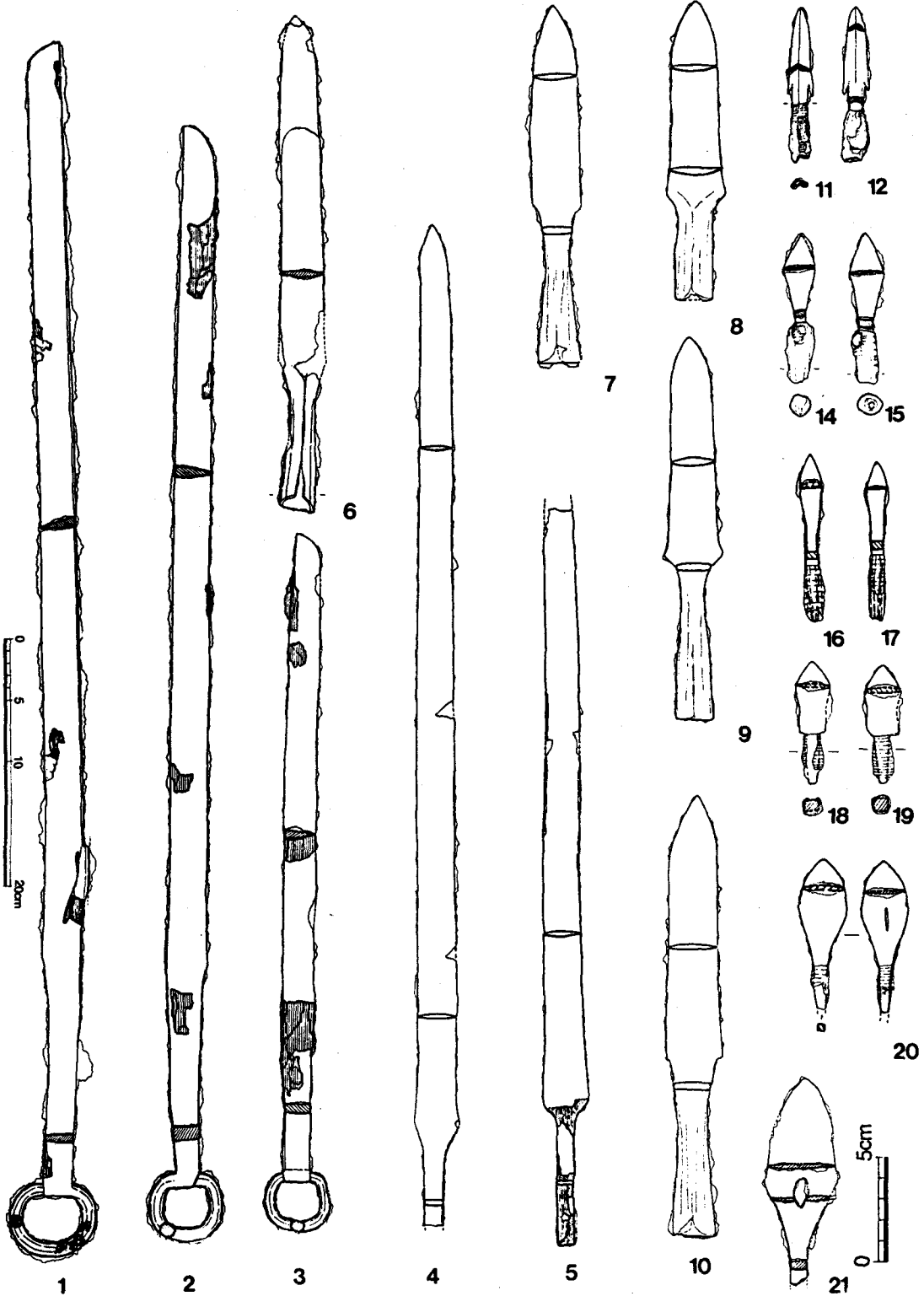
<土器： $\frac{1}{4}$ ，外： $\frac{1}{3}$ >

1, 2: 良洞(東) 99號, 3~12: 良洞(東) 55號, 13, 14: 大成洞周邊 I 地區 13號



圖面 2. 木柩墓 出土 土器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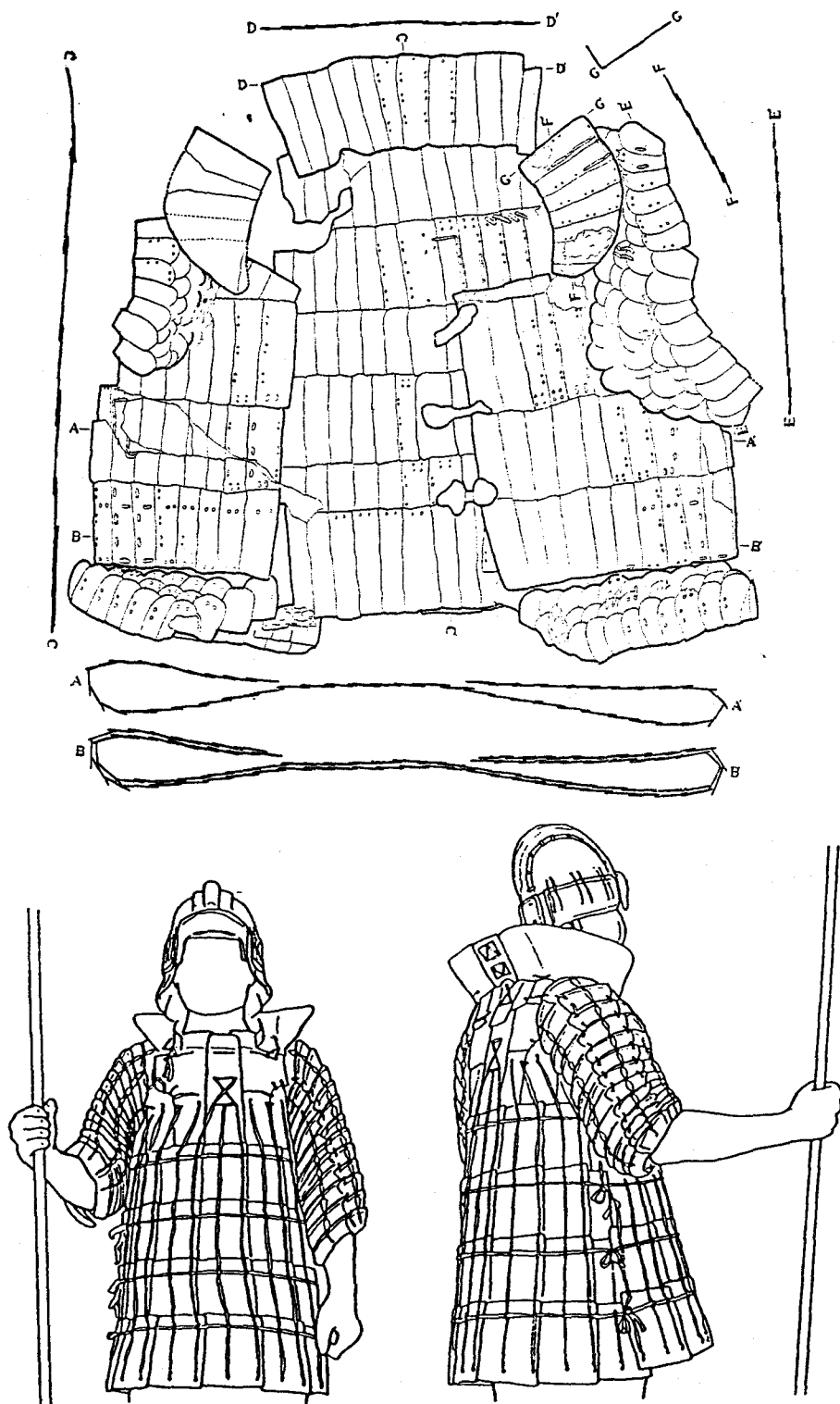
1, 2, 5: 下埜 17號, 3: 下埜 2號, 4: 下埜 1號, 6: 下埜 33號, 7: 下埜 5號



圖面 3. 木柶墓 出土 鐵器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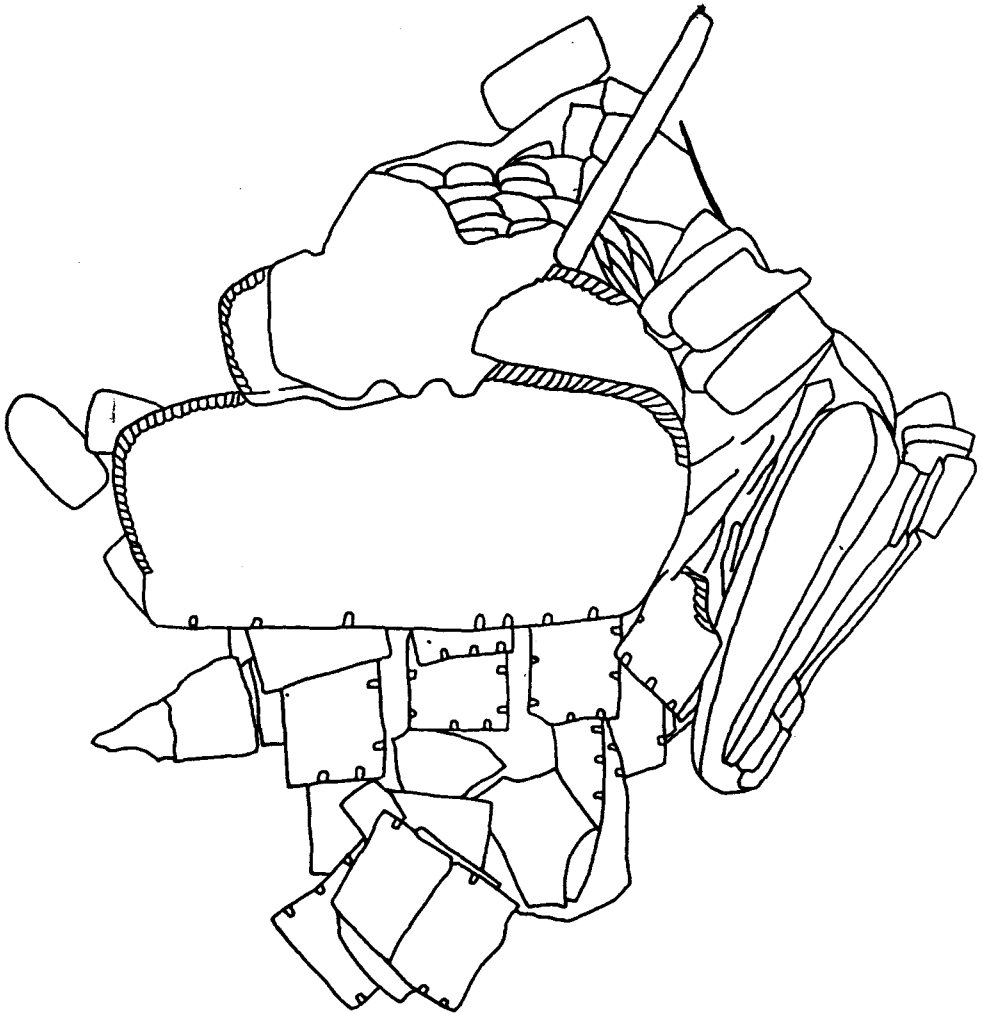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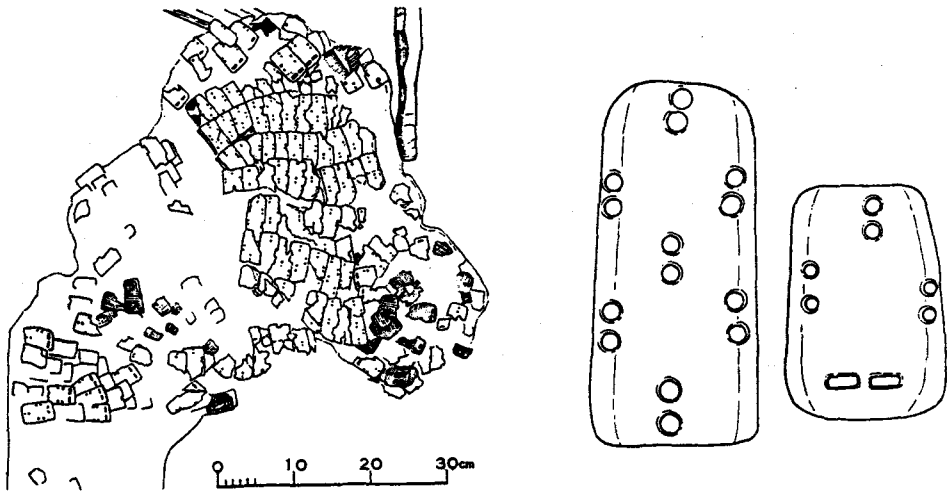
1, 6, 11~17, 21: 老圃洞 31號, 2, 3: 老圃洞 33號, 4: 下垜 76號, 5: 54號,
7~10, 18~20: 大成洞 29號

<1~10 : 1/5, 11~21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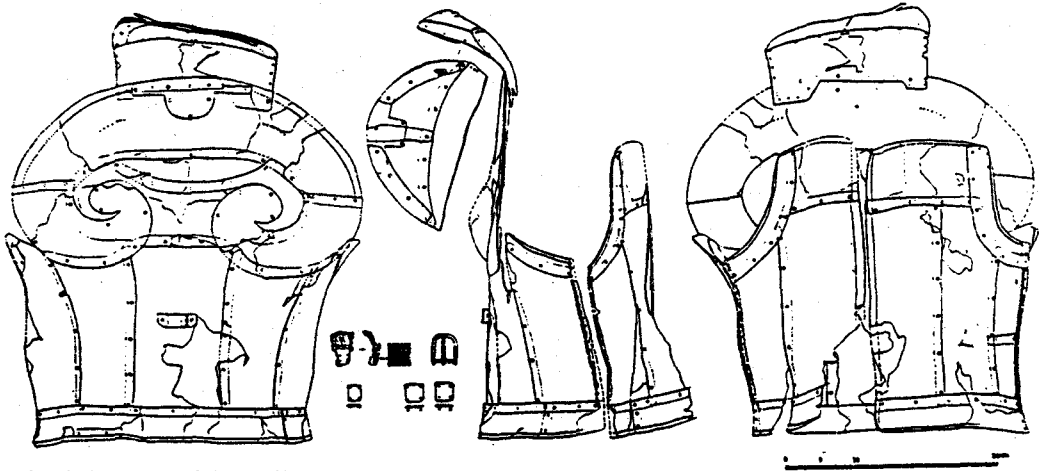
圖面 4. 中國の 甲冑

上：戶和浩特十二家子漢城出土 札甲， 下：曾侯乙墓出土 皮甲 復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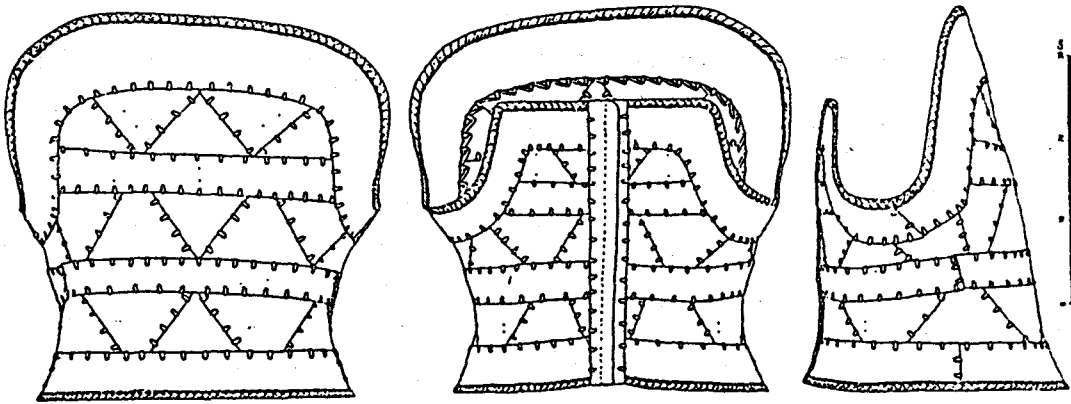


圖面 5. 韓半島 出土 甲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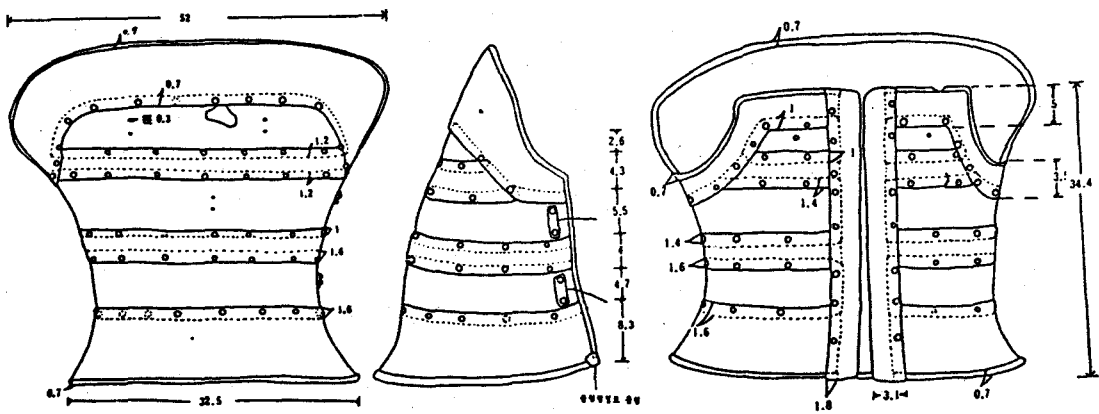
上：石巖里 219號 漆札甲出土狀態 契 小札， 下：福泉洞64號 刀形板革綴板甲



① 복천동 10호분(부산대) 출토 縱長板釘結板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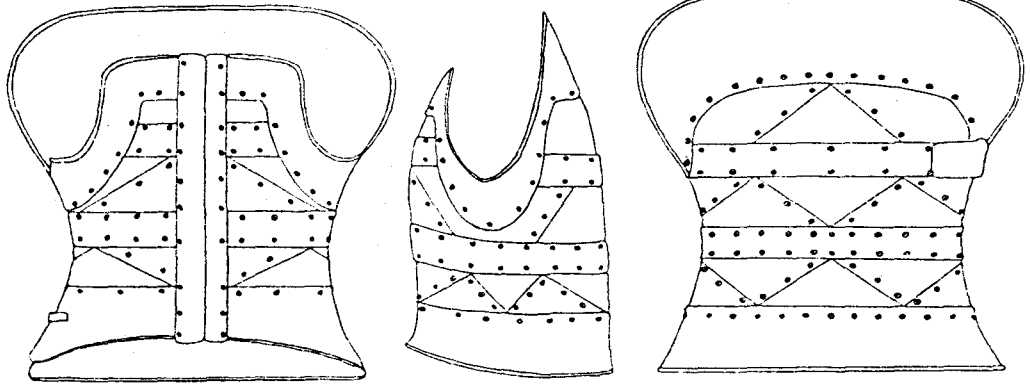
② 복천동 4호석곽묘(부산대) 출토 三角板革綴板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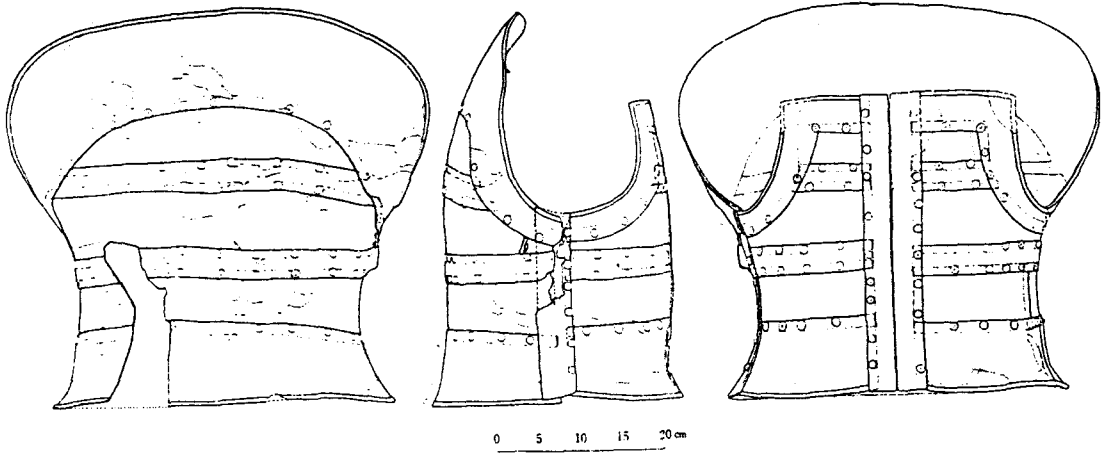
④ 함천옥전 28호분 출토 橫長板釘結板甲

圖面 6. 嶺南地域 出土 板甲 I

<土器 : 1/4, 外 : 1/3>



① 함양상백리고분군 출토 삼각판釘結板甲



④ 고령지산동 32호분 출토 橫長板釘結板甲

圖面 7. 嶺南地域 出土 板甲 II

<土器: 1/4, 外: 1/3>